

올바른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를 위(爲)하여

金元龍

문교부(文敎部)에서는 해마다 연례행사(年例行事)로서 문화재(文化財) 애호기간(愛護期間)을 설정(設定)하여 여러 행사(行事)를 실시(實施)하고 있다. 때로는 보도기관(報道機關)을 통(通)한 좌담회(座談會), 문화재(文化財) 사진(寫眞)의 지방순회전시(地方巡廻展示), 웅변대회(雄辯大會) 학생(學生)들의 작문현상모집(作文懸賞募集), 또한 문화재(文化財) 보존공로자(保存功勞者)의 표창(表彰)등(等) 여러 가지 행사(行事)를 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문화재(文化財) 애호(愛護)라는 말은 이제는 말로서의 효력(效力)을 잃어버릴 정도(程度)로 많이 쓰이고 듣고 하는 문구(文句)이다. 이 문구(文句)처럼 가장 중요(重要)한 것 같으면서 가장 평범(平凡)한 것이 없고 이 말처럼 뚜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 실지로는 애매(曖昧)한 토대(土臺) 위에 서 있는 말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 눈앞에 적(敵)이 하나도 없는데 총(銃)을 들고 어서 싸우라고 명령(命令)받는 것 같고 장애물(障害物)이 없는데 뛰어 넘으라는 것 같이 실감(實感)이 안 난다.

이렇게 너무 함부로 또 빈번하게 쓰여서 이제는 말로서 효력(效力)을 상실한 말을 내걸어 일반국민(一般國民)의 귀가 번쩍 할 리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일선(一線) 실무자(實務者)들에게 새삼스러운 감명(感銘)을 줄 리가 없다.

우리는 행동(行動)을 하기 위해서 이념(理念)을 가져야 한다. 이념(理念)없이 하는 행동(行動)에는 열의(熱意)와 힘이 없이 하기 위(爲)해서는 우선(優先) 문화재(文化財)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문화재(文化財)의 진실(眞實)한 뜻과 가치(價値)를 파악(把握)함으로써 문화재(文化財)를 우리 실생활(實生活)과 연결(連結)시켜야 한다. 그저 맹목적(盲目的)으로 문화재(文化財)니까 애호(愛護)해야 한다는 이론(理論)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울고 싶지 않은데 울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재(文化財)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이라는 기본관념(基本觀念)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文化財)의 보존사업(保存事業)은 순전(純全)히 보존(保全)을 위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傾向)이 있다. 비석(碑石)이 있으면 비각(碑閣)을 세워서 보호(保護)하는 것이 통념(痛念)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아예 살 문을 해 달아서 사진 촬영(攝影)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육안(肉眼)으로 보려고 해도 무슨 감옥에서 면회(面會)나 하는 것처럼 문 살 틈으로 눈알을 휘둘러야 한다. 경주(慶州)의 봉덕사(奉德寺) 동종(銅鍾)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을 말하자면 사람과 문화재(文化財)를 분리격리(分離隔離)하여 놓는 것이다. 물론(勿論)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을 위해서는 그러한 격리(隔離)가 필요(必要)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保存)은 잘된 보존(保存)이 아니다.

문화재(文化財)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生活)과 격리(隔離)되어 높은 담 안에 쌓여 있어야 하는, 그런 죽은 물건이 아니다.

문화재(文化財)는 우리 실생활(實生活)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

현재(現在)와 분리격리(分離隔離)된 과거(過去)는 있을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나날이 우리의 역사(歷史)를 형성(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歷史)를 짊어지고 있는 동시에 그 역사(歷史)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느 민족(民族)이나 국가(國家)도 역사(歷史)를 가지고 있다. 그 역사(歷史)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또 찬란(燦爛)한 것도 있고 보잘 것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역사(歷史)가 없는 민족(民族)은 없다. 부모(父母)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世上)에 나타날 수 없고 집이 없는 우리가 사회인(社會人)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歷史)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日常生活)과 아무 관계(關係)가 없는 죽은 과거(過去)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것 없이는 일어 설 수 없는 발판과도 같은 것이다. 역사(歷史)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역사(歷史)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歷史)를 중요시(重要視)하고 역사(歷史)는 마치 나라나 민족(民族)의 이력서(履歷書)와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누구나 좋은 이력(履歷)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이력(履歷)을 가지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치(政治)의 역사(歷史)나 군사(軍事)의 역사(歷史)라면 책(冊)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자기(自己) 나라의 것을 스스로 써 두지 않아도 외국(外國)의 역사(歷史)에 그것이 기록(記錄)되어 있는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文化)의 역사(歷史), 예술(藝術)의 역사(歷史)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글이나 말만 가지고는 이해(理解)할 수 없다. 남의 나라가 훌륭한 문화(文化)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기록(記錄)해 둘 나라는 없다. 문화(文化)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증거물(證據物)이 없으면 이것은 그 문화(文化)가 뿌리 채 없어지는 것과 같다. 한번 없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있던 자기자신(自己自身)도 잊어버리는 법(法)이다. 남이 남의 것을 기억(記憶)해 둘 리 만무(萬無)하다. 우리 자신(自身)이 우리의 것을 간직해야만 한다.

문화재(文化財)는 말하자면 우리의 이력서(履歷書)와도 같다. 과거(過去)의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현재(現在)와 연결(連結)되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문화(文化)의 역사(歷史)이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민족(民族)의 문화(文化)가 서있는 튼튼한 기반이다. 이것은 결(決)코 우리와 격리(隔離)되고 현재(現在)와 분리(分離)되어야 하는, 죽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문화재(文化財)를 보존(保存)하는 것은 그것이 죽은 물건이 되지 않고 잊어버린 물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목적(目的)이라면 부디 번호(番號)를 매겨 보호(保護)할 필요(必要)가 없다. 큰 산에 굴을 파고 모든 문화재(文化財)를 잡아 넣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日常生活)속에 살고 있는 문화재(文化財)가 되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화재(文化財)를 부디 인적(人蹟)없는 산(山)속에 가두어 둘 필요(必要)는 없다. 나는 산(山)속에 가두어 둘 필요(必要)는 없다. 나는 산(山)속에 있는 문화재(文化財)를 끌어내자는 것이 아니다. 동리(洞里) 한 가운데에 있는 문화재(文化財)를 부디 격리고립(隔離孤立)시킬 필요(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초가(草家)집 옆에 석탑(石塔)이 서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이 석탑(石塔)은 그 동리(洞里)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동장(學校運動場)에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서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그 지주(支柱)는 수(數) 많은 학생(學生)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외국(外國)에서는 고대(古代)의 유적(遺蹟), 유물(遺物)을 잘 손질해 가지고 외

국인(外國人)에 대(對)한 관광선전용(觀光宣傳用)으로 쓴다. 『로마』에서는 현대(現代) 건물(建物)에 붙어서 옛날 건물(建物)이 서 있다. 고대(古代)와 현대(現代)의 뚜렷한 대조(對照)는 보이거나 시간적(時間的)으로 분리(分離)된 과거(過去)와 현재(現在)는 없다. 이것은 이태리(伊太利)라는 나라의 문화(文化)를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많은 관광객(觀光客)들이 이 고대(古代)의 유적(遺蹟)을 보기 위해 세계(世界) 각국(各國)에서 모여든다. 어느 유적(遺蹟)을 가도 그림 엽서(葉書)나 설명문(說明文)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자랑스러운 어조(語調)로 그 유적(遺蹟)의 역사(歷史)를 말한다. 이 문화재(文化財)들은 현대(現代) 이태리인(伊太利人)들의 생활(生活)속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現代) 이태리(伊太利) 사람들을 경제적(經濟的)으로 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現狀)은 이태리(伊太利)뿐이 아니다. 「유럽」 어느 나라엘 가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한 실용적(實用的)인 면(面)을 통(通)해서 일반국민(一般國民)의 생활(生活)과 밀접(密接)히 관계(關係)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文化財)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國民)모두가 잘 인식(認識)하고 있다. 정부(政府)에서 특별(特別)히 관리(管理)하지 않아도 문화재(文化財)가 밤사이에 도괴(倒壞)되거나 손상(損喪)되는 일이 없다. 자기(自己)의 이력서(履歷書)를 자기자신(自己自身)이 찢어버릴 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제시대(日帝時代)에는 우리의 역사(歷史)를 말살(抹殺)하고 망각(忘却)시키려는 일본(日本)의 방침(方針)대문에 우리 대부분(大部分)은 우리 자신(自身)의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해서 아무런 관심(關心)이나 인식(認識)을 가지지 못하였었다. 해방(解放)이 된 이후(以後)로 이 무관심(無關心)과 무지(無知)는 급속도(急速度)로 없어지고 현재(現在)는 도리어 지나칠 정도(程度)로 문화재(文化財)를 외쳐 맹목적(盲目的)인 국수주의(國粹主義)에 입각(立脚)한, 내용(內容)이 없는 방향(方向)으로 나가는 경향(傾向)까지 보인다. 그러나 문화재(文化財)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중요성(重要性)을 일상(日常) 쓰는 돈과도 같이 실감(實感)을 가지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 아니 일반국민(一般國民)이 너 나 할 것 없이 문화재(文化財)의 진정(眞正)한 의의(意義)를 깨닫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점(點)을 때때로 의심할 때가 있다. 우리의 조상(祖上)의 것이니까, 몇 백 년 된 것이니까, 지금(至今)은 만들지 못하는 것이니까—그러니까, 문화재(文化財)는 애호(愛護)하고 잘 관리(管理)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들 대부분(大部分)의 인식(認識)이 아닐까. 그 이유(理由)도 모두 훌륭하다. 사실(事實) 그런 점(點)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理由)에는 우리에게 실감(實感)이 나는 아무 것도 없다. 장인(丈人)이 돌아가면 사위로서는 울어야 한다. 그것은 인륜(人倫)이고 공식화(公式化)된 도덕(道德)이다. 그러나 실지(實地)로는 눈물이 안 나온다. 안 나오는 눈물을 짜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無理)다.

과거(過去)의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한 계몽(啓蒙)에는 이러한 무리(無理)가 있었다. 우리는 이제 버려야한다. 문화재(文化財)를 우리들 일상생활(日常生活)과 관련(關聯)시킴으로서 우리가 문화재(文化財)의 중요성(重要性)을 실감(實感)해야만 한다. 실지로 손을 대지 않아도 그 주변(周邊)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恒常)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文化財)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화재(文化財)를 실용화(實用化)해야만 한다. 우리들의 나날의 생활(生活)과 무슨 유기적(有機的) 관계(關係)를 세워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國民) 하나 하나가 관리(管理)하는 문화재(文化財)가 되어야지, 어떻게 한 사람의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이, 한사람의 장학사(獎學士)가 정부(政府)의 힘만을 배

경(背景)으로 해서 그 많은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해 나갈 수 있을까.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에는 여러 가지 애로(隘路)가 많다. 수천(數千)을 헤아리는 문화재(文化財)가 매일(每日) 매일(每日) 밤하늘 밑에서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있다.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눈에 안 보이는 손상(損喪)이 문화재(文化財)에 가(加)해지고 있다. 손이 천 개(個) 노동자가 이천 개(二千個) 있어도 이것을 찾아내고 막아 낼 수 없다. 돈이 무한정(無限定)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신문(新聞)에서는 트집을 잡는다.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입만 가지고 애국(愛國)을 하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트집을 잡았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는 국민(國民) 각자(各自)가 결국(結局)은 저야 할 책임(責任)이다. 이 점(點)을 정부(政府)는 국민(國民)에게 인식(認識)시켜야 한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급(急)한 것이다. 국민(國民)이 귀로 들어서 머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추상적 이론(理論)이나 인식(認識)이 아니고 생활(生活)과 관련(關聯)된 실질적(實質的)인 실감(實感)과 체험(體驗)이라야 한다. 지방(地方)에서 올라오는 문화재보수공사(文化財補修工事) 신청서(申請書)를 보면 뒤뚱거리는 불상(佛像)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불상주변(佛像周邊)에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가게 담을 쌓고, 철책(鐵柵) 아니면 철망(鐵網)을 치도록 되어 있다. 철망(鐵網)이라는 것은 전쟁(戰爭)터에서 적(敵)이 들어오지 못하게 둘러치는 물건(物件)이다. 그것은 전시(戰時), 그것도 전장(戰場)에서만 볼 수 있는 물건(物件)이다. 그런데 이 철망(鐵網)을 어디다 쳐 놓자는 말인가 주변(周邊)에 사는 부락민(部落民)들이 모두 적군(敵軍)이란 말인가. 문화재(文化財) 보호(保護)는 이제 한 발을 전진(前進)해 폐쇄(閉鎖)로부터 개방(開放)으로 나가야 한다.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했지만 문을 차고 나가서 현재(現在) 살고 있는 구구(九九)민들의 실생활(實生活)속에 들어가야만 한다. 후퇴(後退), 은신(隱身)하지 말고 전진(前進), 적극적(積極的)이 되어야 한다. 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는 대(對) 자연적(自然的)인 것이 되어야 하지 대(對) 인간적(人間的)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人間)에 대(對)해서는 문화재(文化財) 자신(自身)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人間)이 일어서서 교육(教育)하고 계몽(啓蒙)하여야 한다.

과거(過去)에는 문화재보수비(文化財補修費)가 정치자금(政治資金)처럼 사용(使用)되고 몰상식한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의 간섭(干涉) 때문에 엉뚱한 보존사업(保存事業)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일선(一線) 담당자(擔當者)가 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를 빙자해서 공금(公金)을 유용(有用) 횡령(橫領)하는 경우(境遇)도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재(文化財)를 공연히 들었다 놓고 보수(補修)가 아니라 파괴(破壞)와 같은 결과(結果)를 가져오는 일도 있었다. 조금 비가 셀 때 기와 몇 장 손질하면 되는 것을 일부러 방치(放置)해 두었다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신문(新聞)과 합세(合勢)해서 보수비(補修費) 획득(獲得)에 혈안(血眼)이 된 직업(職業) 종교인(宗敎人)들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地方)에 다녀 보면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해서 전혀 지식(知識)이 없는 일선(一線) 실무자(實務者)가 있다.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한 지식(知識)이라기 보다는 전혀 관심(觀心)이 없는 자(者)가 있다. 이래 가지고서는 올바른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가 실현(實現)될 도리(道理)가 없다. 문화재(文化財)를 다루는 실무자(實務者)들은 이제 자기자신(自己自身)의 직책(職責)에 대(對)해서 인식(認識)을 새로이 해야만 한다. 자기(自己) 관내(管內)의 문화재(文化財)의 현상(現象)을 파악(把握)해서 중앙(中央)에 보고서(報告書)를 보내고 보수비(補修費)가 나오면 공사(工事)나 진행(進行)한다는, 그러한 고식적인 집무(執務) 태도(態度)를 지양(止揚)하고 어떻

게 하던 일반국민(一般國民)이 실감(實感)을 가지고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할 수 있게 될까, 하는 새로운 방법(方法)을 고안(考案)하고 그것을 실천(實踐)에 옮겨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화재(文化財)의 애호(愛護)나 관리(管理)는 문화재(文化財)를 죽은, 과거(過去)의 물건(物件)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國民)들의 일상생활(日常生活)과 결합(結合)시켜 국민(國民) 각자(各字)가 모두 문화재(文化財)의 실질적(實質的) 관리자(管理者)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하는 실무자(實務者)들은 이제 종래(從來)의 사고방식(思考方式)을 버리고 자기자신(自己自身)이 새로운 인식(認識)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

(필자(筆者) 서울문리대교수(서울文理大教授))

패총(貝塚)

고대인(古代人)이 포식(捕食)한 패총피(貝塚皮)를 유기(遺棄)한 것이 퇴적(堆積)하여 층(層)을 이룬 유적(遺跡)이며 패총(貝塚)의 패층(貝層) 중(中)에는 동시(同時)에 버려진 토기(土器), 석기(石器), 기타(其他)의 유물(遺物)도 혼재(混在)하여 있어 유물포함지(遺物包含地)의 특수(特殊)한 경우(境遇)라고 볼 수 있다. 당시(唐詩) 패(貝)를 버린 장소(場所)는 비교적(比較的) 주거근방(住居近方)에 있었던 고(故)로 패층(貝層) 하(下)에 주거지(住居址)가 있다든가 패층(貝層) 중(中)에 노지(爐址)나 매장인골(埋葬人骨)이 발견(發見)될 때도 많다. 또한 패총(貝塚)은 자연환경(自然環境)의 복원(復元)에 역할(役割)이 많은 조수어골(鳥獸魚骨)이나 골각기(骨角器)의 보존(保存)에 적합(適合)한 조건(條件)을 구비(具備)한 점등(點等) 비교적(比較的) 단시일(短時日)에 두터운 패층(貝層)이 형성(形成)되는 고(故)로 층위학적(層位學的) 연구(研究)에 유리(有利)한 점(點)이 있고 고고학적(考古學的) 조사(調查)의 좋은 대상(對象)으로 주목(注目)되어 있다. 패층(貝層)은 패(貝)의 포식(捕食)에 편리(便利)한 수변(水邊)에 주거지(住居址)가 있을 경우(境遇)에 만들어진다. 현재(現在)의 패총(貝塚)의 위치(位置)가 해안(海岸)으로부터 먼 거리(距離)에 있지만 그것이 바다의 패(貝)로 이루어진 패총(貝塚)이라면 해안선(海岸線)이 이동(移動)된 것으로 판단(判斷)하여도 좋다.

패총형성당시(貝塚形成當時)의 환경(環境)을 알려면 그 패총(貝塚)이 어떠한 종류(種類)의 패(貝)로써 형성(形成)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必要)가 있다. 그것을 함수산(鹹水産)의 패(貝)와 담수산(淡水産)의 패(貝)와의 혼합(混合)의 정도(程度)에 따라 순함패총(純鹹貝塚), 주함패총(主鹹貝塚) 반함반담패총(半鹹半淡貝塚), 순담패총(純淡貝塚)으로 분류(分類)하는 일도 있다.

패총(貝塚)의 크기는 거기에 살고있던 사람의 수(數)와 기간(期間)으로 인(因)하여 좌우(左右)되는 것이겠지만 실제(實際)로 10㎡정도(程度)의 것도 있고 10,00㎡에 달(達)하는 것도 있다. 패층(貝層)의 두께(厚)도 20cm이하(以下)의 것도 있고 3m를 넘는 것도 있다. 두터운 패층(貝層)에는 패(貝)의 종류(種類)의 변화(變化)나, 패(貝)와 흙과의 혼합방법(混合方法)이나, 회층등(灰層等)의 중간층(中間層)의 소재 등(所在等)에 의(依)하여 퇴적(堆積)의 시기(時期)를 구별(區別)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境遇) 패층(層)만의 퇴적층(堆積層)을 순패층(純貝層)이라고 한다.

패총(貝塚)의 조사(調查)에는 패층(貝層)뿐만이 아니라 패층하(貝層下)의 상층(上層)에도 유물(遺物)의 유무(有無)를 확인(確認)할 필요(必要)가 있다.